광주공연예술제 물건너 가나

4개월 앞두고 행사 밑그림조차 못 그려…이사회도 사분오열

제3회 광주국제공연예술제(이하 공연예술제)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행사를 진행할 조직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데다 프로그램의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이에 따라 행사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고, 일부에서는 올해 축제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조직위원회 이사장과 집행위원 등이 사퇴했지만 40일이 넘도록 후임 인사 선정 등 향후 계획을 점검할 이사회 한번 열리지 않고 있어 행사 준비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공연예술제는 약 13억원 규모(시·국비 6억원)로 오는 9월 16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행사 준비 올 스톱

이사장 등 사퇴 후 공연예술제 준비는 답보상태다. 프로그램 선정과 조직 운영 등을 맡을 집행위원장 선임 등 굵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사회 소집이 미뤄지고 있는 탓이다.

현재 임시 이사장은 광주시의회 의장이 맡고 있으며 이사는 당초 21명에서 허성관·김필식 이사가 사퇴, 19명이다. 특히 일부 이사들도 공연예술제가 파열음을 내자 이사회가 소집되면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는 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이사회를 소집하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늦게나마 29일 열릴 예정이던 이사회마저 특정 이사의 사퇴 문제가 얽히면서 무기한 연기돼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문화계 인사 A씨는 "행사가 촉박한 상황에서 일단 이사회를 소집, 그 안에서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정 인사 때문에 이사회를 연기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직이 제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일부 집행위원들이 정관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신임 집행위원을 선정, 발표하는 해프닝도 있었고 뒤늦게 규정을 안 일부 신임 인사는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공동주최측인 광주시는 이미 시비와 국비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칫 행사 자체가 무산될까 애가 탄 상태지만 원활한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사회 소집 서둘러야

시·국비가 투입되는 행사의 매력은 수익에 연연하는 기획사들이 엄두내지 못하는 수준 높은 공연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통영국제음악제 등이 1년여전부터 프로그램 선정에 착수하는 데 반해 공연예술제는 첫단추도 꿰지 못해 올해도 주먹구구식 운영이 불 보듯 뻔하다.

지역예술계는 현재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B씨는 "명색이 국제 행사인데 외국 단체의 수준있는 작품 섭외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서울서 공연중인 뮤지컬 몇 편 가져다 행사를 여는 게 아닌가하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씨는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마련한 행사인 만큼 행사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 문화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직 정비 작업과 프로그램 선정이 늦어지면서 광주국제공연예술제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열린 광주국제공연예술제 모습.

지역출신 작가들 중앙무대서 두각

최치언씨 '희곡 활성화 사업' 2년 연속 선정

김경주씨 청소년 문학상 등 심사위원 활동

이은규씨 현대문학 등 문예지서 잇단 러브콜

〈극작가 최치언〉

〈시인 김경주〉

〈시인 이은규〉

지역 출신 젊은 작가들이 한국 문단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가능성을 인정받은 작가에게 주어지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데뷔 첫해 각종 문예지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등 중앙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영암 출신 최치언씨는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정헌)의 '희곡활성화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80년 5월 광주에서 사기행각을 벌이는 중년남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최씨의 희곡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슬픔' '사랑해줘 제발' 등은 오는 7월과 하반기에 서울 아르코 예술극장 무대에서 선보인다. 연말에는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밤비 내리는 영동교'가 다시 무대에 올려진다.

최씨는 1999년 동아일보(시)와 2001년 세계일보(소설) 신춘문예로 등단했지만 최근엔 희곡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 출신 김경주(32)씨는 지난해 발표한 시 '무릎의 문양'이 '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로 뽑혔다. 또 문단에서 거의 막내 격이지만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등 각종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당문학상과 황순원문학상에 최종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또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에서 열리고 있는 '나는 연극이다' 페스티벌에 그의 희곡 작품 '늑대는 눈알부터 자란다'가 공연중이다.

올 가을에는 두 번째 시집도 내고,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기획하는 '무경계 문화 펄프 연구소-츄리닝 바람'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연극, 뮤지컬, 시나리오, 마임 등 다양한 문화장르에서 제작 및 기획을 하고 있다.

2008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된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이은규(여·30)씨는 현대문학 등 전국의 유명 문예지로부터 잇따라 원고 청탁을 받고 있다. 신춘문예 당선자가 데뷔 첫해 유명 문예지에 글을 게재하는 것 자체가 힘든 문단 풍토에서 이씨의 활약은 두드러진다.

또 최근에는 문예진흥기금 시 부문 수혜자로 선정되는 등 올 신춘문예 출신 시인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심술궂은 말썽꾸러기 도깨비

김성범씨 5월1~10일 자미갤러리서 '도깨비'展

'백제 도깨비'

"집안의 음식이나 농기구를 잘 숨기고, 한밤중 산길에서 사람을 놀라게 하며, 씨름을 할 때에는 다리를 감아야 넘어지고…."

우리 민족의 설화에 자주 등장하는 말썽꾸러기 도깨비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동화작가이며, 문화 마을인 '섬진강 도깨비마을'의 촌장인 김성범씨가 5월1~10일까지 자미갤러리에서 '도깨비'전을 연다.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장난치고, 심술부리며, 겁 주는 도깨비의 다양한 형상을 표현한 25점을 선보인다.

자료가 거의 없는 통일신라 시대의 도깨비를 조각으로 복원하는 등 역사 속 도깨비의 다양한 모습을 청동,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점토로 빚었다.

김씨는 '웃는 도깨비'전 등의 전시회를 열었고, 광주·전남 작가회의 어린이문학분과위원장과 디딤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깨비를 소재로 한 책 '도깨비살'(푸른책들), '숨쉬는 책, 무익조'(문학동네) 등의 동화책과 창작동요 음반 '도깨비살'를 내는 등 다양한 장르에서 문화 운동도 벌이고 있다. 문의 062-523-091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조선 유학자 김인후 '천명도' 쉽게 풀어내

14대손 김용숙씨 '하서 김인후 선생 천명도 연구' 출간

〈반도문화사·7천원〉

조선 중기 유학자인 하서 김인후(1510~1560) 선생의 천명도(天命圖)를 알기 쉽게 해설한 책이 나왔다.

김인후 선생의 14대손인 김용숙(74)씨가 최근 '하서 김인후 선생 천명도연구'를 출간했다. '천명도'는 하늘의 뜻과 사람의 관계 등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그림이다.

저자는 김인후 선생의 천명도에 담긴 '인간답게 사는 길'은 "본성(本性)에 따라 도덕적 선한 행위를 하고, 우주 안에서 인간의 위치를 깨닫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 유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국내의 특성이 반영돼, 다른 국내 성리학자들의 '천명도'보다 내용적인 측면이 앞선다고 평가했다.

저자 김용숙씨는 성균관 유도회 중앙위원을 역임했으며, 광주시미술대전 등에서 입선한 서예가이기도 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소프라노 김진남 독창회 5월1일 광주문예회관

소프라노 김진남〈사진〉 독창회가 5월 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On holy ground'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김 씨는 비발디의 '글로리아', 바흐의 '칸타나 68번', 포레의 '레퀴엠' 카터의 "칸타나', 나운영의 '여호와는나의 목자', 조성환의 '생명의 강가로' 등 종교 음악만을 집중적으로 들려준다.

김 씨는 전남대 졸업 후 대학 뉴욕대학과 마이애미 대학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광주대 등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천현주(피아노), 박지혜(플루트), 김창헌(첼로)씨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문의 062-227-74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